2020

INNO-Digital Magazine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대전환 과제

01 디지털 뉴딜과 특구진흥재단

02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중심 체질개선 :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시스템

현대 사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통상 몇 년에 걸쳐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수개월 만에 경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 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연구개발특 구의 현 주소를 알아봅니다.

디지털 뉴딜정책과 함께하는 대전환의 시작,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 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부록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업무협업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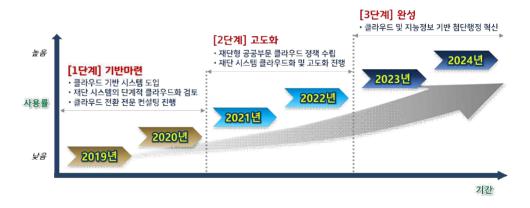
Vol 1.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대전환 과제

1부 디지털 뉴딜과 특구진흥재단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해 ▲D.N.A.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 경제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은 이러한 디지털 뉴딜에 대해 2020 년 과기정통부 D.N.A(Data-Network-AI) 기반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 이전부터 재단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정보화 Innoplatform 이행 단계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확산, 혁신적인 IT업무 환경 수요 대두로 본격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입과 NIA의 클라우드 전문 컨설팅을 통해 '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Innoplatform*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주도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관련정책 링크

- ▶ 한국판 뉴딜 [기획재정부]
- ▶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개최(20.9.17) [과기정통부]
-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20.10.13) [청와대]

^{*} Innoplatform : Innovation(혁신)과 Platform(플랫폼)의 합성어로 연구개발특구의 집적된 기술을 정보시스템 플 랫폼을 통해 기업에게 혁신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2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의미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를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화 인프라와 SW에 대한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에 구축된 인 프라와 SW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여 구독하는 개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구진흥재단에서 도입한 클라우드 기반업무협업시스템 또한 IaaS, SaaS 서비스를 동시에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SaaS(업무협업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가 해당 시스템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저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2] What is SaaS (출처 : Microsoft Azure)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D.N.A 생태계 강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구진흥재단에서도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정보화전략과제로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을 고려했고, 지난 9월 업무협업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그림 3] 연구개발특구의 클라우드 정책 확산 단계

이를 통해 특구진흥재단은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는 계획이 추가로 발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확산 등대내외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특구진흥

재단 내 창의적이고 유연한 IT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을 통한 물리적, 정서적 제약을 해소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경영 효율이 극대화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림 4]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특구진흥재단의 IT업무환경변화

관련정책 링크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추진 현황과 2020 전략 [과기정통부/NIA]
-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운영 개시 [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센터 개소 [과기정통부]

3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중심 체질개선

: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시스템 특구진흥재단은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이은 강소특구 추가지정, 주 52시간제 도입 등 대내외 업무환경변화에 발맞춰 올해 9월 업무협업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업무협업시스템은 기존의 메일시스템 통합과 더불어 화상 회의, 업무자료 공유, 문서 공동 작업, 프로젝트 협업, 일정 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실시간 업무협업이가능하며 이는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 대전/충남 특구진흥재단,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업무협업시스템 구축 회약자료공유-문서작업 등 가능, 업무료율성 † 등록 2020-09-16 17:44-46. [대전-뉴시스] 목구재단이 클라우드 개반 업무협업시스템을 도입됐다. 직원들이 업무협업시스템을 화상회의 기능을 이용되 배대면 관라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뉴시스] 김영수 기자 = 연구개발목구진흥재단은 클라우드서비스 기반 업무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범했다. 이번에 재단이 도입한 업무협업시스템은 화상회의 업무자료 공유, 문서 공동 작업, 프로젝트 협업, 일정공유 등의 가능을 갖추고 있다.



[그림 5]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시스템 보도자료

업무협업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업무를 효율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 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업무매뉴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부록에서는 재단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일상 속 업무고충을 해결하는 소통창구로서 「혜민에게 물어봐!」시리즈 연재를 통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리즈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협업시스템 활용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정책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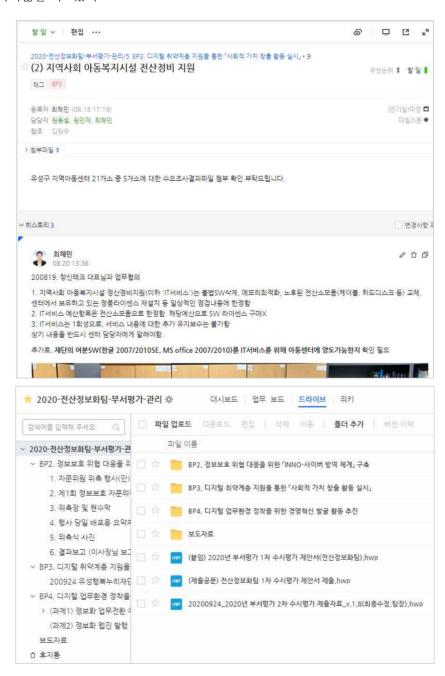
- ▶ 업무협업시스템 매뉴얼 (작성 : 전산정보화팀)
- ▶ 특구진흥재단,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업무협업시스템 구축 [재단 홈페이지]

부록. 혜민에게 물어봐! ①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요. 하필 직전에 제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은 퇴사를 하셨네요..저는 대체 누구에게 업무를 배워야하나요.."

업무협업시스템에서 팀 업무 프로젝트에 초대받으시면 그 전의 **업무담당자가 작성해놓은** (프로젝트)업무들, (드라이브 업로드)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에는 담당자 외에 다른 팀원들이 히스토리(댓글) 내에서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서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않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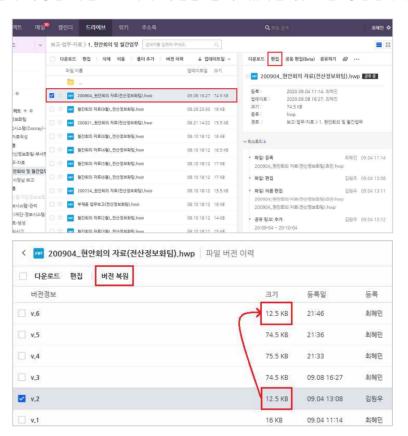


부록. 혜민에게 물어봐!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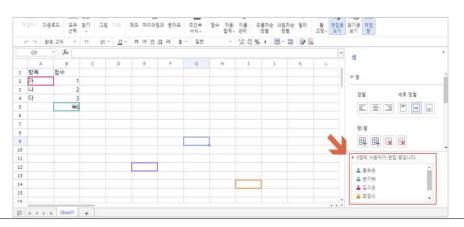
"업무협업시스템 덕분에 드라이브를 쓸 수 있게 돼서 편하긴 한데 매번 자료버전 바뀔때마다 드라이브에 올리고 내리고...번거롭긴해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규 업무협업시스템 드라이브는 단지 온라인 저장공간 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 업로드 상태에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편집과 공동 편집인데요. 또한, 드라이브 상에서 편집한 내용에 대한 버전이력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전에 작성한 버전으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하시면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여 자료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팀원들과 함 업무를 진행할 시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공동 편집을할 경우 아래의 사진처럼 동시접속자 명단이 노출됩니다. 현재 재단에서 매주 부서장 현안회의 안건 취합 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록. 혜민에게 물어봐! ③



"기술사업화 담당자로서, 소통하는 기관·업체가 많다보니 매일 수십 건씩 이메일이 쌓여요. 최대한 폴더 별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가끔 상대측 담당자가 바뀌어서 메일이 새로 온 경우에는 그 분류마저 못할 때가 있죠"

업무협업시스템에서는 프로젝트 별로 전용메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용메일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며, 전용메일로 메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내업무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목적 별로 이메일을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업무와 광고 이메일 분류도 쉬워 지고 프로젝트 내 멤버들에게도 자동으로 공유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록. 혜민에게 물어봐! ④



"000씨는 업무확인이 늦는 편이에요..제가 항상 메신저를 드리면 그제야 '업무가 온 줄 몰랐다.' 면서 확인을 하러 가시더라고요..정말 답답해요.."



업무협업시스템에서 상대를 담당자로 지정하시거나, 업무 히스토리(댓글)에서 멘션 (@이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정된 상대에게는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고, 알림이력 또한 남습니다.

알림은 (1)업무협업시스템 내 스트림 과 (2)두레이 메신저 내 Dooray! New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업무협업시스템 내 스트림

(2) 두레이 메신저 내 Dooray! News



